

SK 목표주가 4만5000원 상향조정

메리츠증권,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 정유 · 화학부문 수익성 높아져

메리츠증권은 1월27일 SK에 대해 정유 및 화학 업종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높였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SK는 인수·합병 실현성은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소비재자산운용, 채권단,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인해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배당압력 강화, SK텔레콤 일부 지분의 추가 매각, 무수익성 자산 매각 등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2004년 부문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시장평균 및 경쟁사 상대지표를 고려할 때 SK의 총기업가치(영업가치)는 8조원 내외로 추정되며, 여기에 연말 예상 순차입금(약 5조원)과 SK텔레콤 등 관계회사의 지분가치를 고려할 때 SK의 적정주가는 4만5000원 내외로 평가되는데도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반적인 정유 및 화학 사업의 호조세 역시 SK의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 강세 및 석유 수급 타이트로 국내외 석유정제 마진이 향상되고 있으며, 주력제품인 P-X (Para-Xylene), SM(Styrene Monomer) 등의 가격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화학부문의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의 석유화학 부문 매출은 20%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나 영업이익 비중은 45%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익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28>